

금주 미사 독서: 한병철 바오로, 한진희 아네스	<u>+ 지난주 우리의 정성</u>
다음 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 영주 리드비나	봉헌금: \$326
금주 미사 복사: 손제규 마티아, 이주현 안드레아	교무금: \$400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위령미사 봉헌금: \$390
금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
다음 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합계 : \$1,116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강동현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테레사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차주 봉헌봉사: 우명희 카타리나
친교실 정리: 2 구역	* 매월 마지막 2 차헌금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 교 / 간 식 모 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2월 22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동계 휴식기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혹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악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이러한 유혹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괜찮아!’의 유혹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뛰어들려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죄를 지어도 그분께서 한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악마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분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그렇지 않는 분이려면 무슨 사랑의 하느님이야? 사랑이시라면 당연히 용서해야지. 안 그래? 죄를 지어 버려! 그래도 괜찮아.’ 물론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담보로 삼아 계속해서 죄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 놓고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랑의 하느님도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죄의 잣대로 재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죄짓기를 거듭한다면, 하느님께서 아무리 용서해 주신다 해도 어느새 우리는 그 죄에 종속되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봉헌금: \$326
 교무금: \$400
 위령미사 봉헌금: \$390

 합계: \$1,116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테레사
 차주 봉헌봉사: 우명희 카타리나
 * 매월 마지막 2 차헌금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2013년 2월 16일

<제 1 독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흰새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시작: 124 봉헌: 210 성체: 179 파견: 115



예수님, 잘 보게 해 주세요!

사순 시기 첫째 주일에는 어느 해에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마태 4,1-11; 마르 1,12-15; 루카 4,1-13) 유혹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첫 장면이기도 하지만, 악의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예고하고 요약합니다. 악마의 유혹의 특징은 진짜와 가짜를 교묘히 속이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욕구와 갈망을 제 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루카 4,3) 빵은 육체적 ‘배고픔’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빵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루카 4,4)라고 하시며, 사람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요한 4,34)이 나의 음식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배고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루카 4,7)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찬사와 감탄을 한몸에 받으며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알리고 멋진 삶을 꿈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가치나 시대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좇다보면 삶의 기준이 뒤흔들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품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루카 4,9)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능력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절제 없이 축적된 힘은 상대방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다른 이에게 활력이 되고,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루카 4,12)고 하시며 힘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힘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마태 27,42 참조)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분에게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유혹들은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혹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순 시기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 공지사항

1. 다음 주 미사 후 (23 일)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세린 그라시아 (김선우 도미니꼬/ 강자영 엘리사벳)

김동욱 루카 (김태진 하상바오로/ 김예중 안나마리아).

현서경 소피아 (박창현 마리아)

윤서희 가브리엘 (윤두수/ 문추자 실비아)

이아린 엘리사벳 (이규희 스테파노/ 한지영 크리스티나)

<2월 미사전 묵주기도 지향>

2월 기도지향은 저희 매디슨 공동체분들 가족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미사시작 20분전에 묵주기도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2월 한 달 동안 독서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은숙 글라라** 자매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sjeon95@mac.com)

<기도모임(계속)>

매주 금요일 1시에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매주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조은영 베다 (beda0528@hotmail.com) 자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2월 22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적정리 (계속)>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